

**[H 갤러리] MARCH COLLECTION**

**3. 1. – 3. 31.**

**PHILIP. HAN**

## Santeri Salokivi. 1886-1940, 핀란드

### 3. 6. 토



Santeri Salokivi. The wait, 1911. Venice. Oil on board 14x22 cm. bukowskis.com

봄 정령으로 이 그림이 스며들 더디 옥빛 기운이 스멀스멀 내 눈동자를 물들인다.  
이런 기다림이라면 좋다. 한데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았으면 싶다.

### 3. 6. 토



Santeri Salokivi. Woman at the Beach, 1929. Pinterest

바다 너머로는 내 기다림이 묻힌다 해도 수평선까진 4km 한 달음에 도착한 내 기다림은 행복하다.



### 3. 7. 일



Santeri Salokivi. On The Shore, 1911. mutualart.com

기다림을 무엇이라 꼭 표현하고 싶었던 날 사실 한 문장도 쓰지 못했다. 뭐 그러려니 했다. 한데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 아침을 학수고대한 사람 발걸음에 어울려 노는 모든 빛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다.

### 3. 7. 일



Santeri Salokivi. VENICE. 1911. mutualart.com

기다림을 품에 안고 무엇이든 간 기다리기에 알맞은 오후 이 시간, 그 시간 주인  
공이 나였으면 싶다.

Geoffrey Johnson. 1965 ~ , 미국

### 3. 11. 목



Geoffrey Johnson. Paris Street III. 2019. artsy.net

실수를 연발했던 날 밤, 그럴 수 있다라고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거대한 도시에서 나는 까만점으로 새하얀 새벽을 맞이한다.

### 3. 11. 목



Geoffrey Johnson. [imaginaryroomies.wordpress.com](http://imaginaryroomies.wordpress.com)

거대한 도시 검은 한 점으로 나를 자각한 후 맞이한 도시는 역시 외로웠다. 한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도 잠깐 빌려 쓰는 느낌도 들었다. 한데 이상한 일이다. 도시는 내 마음 아랑곳없이 곳곳에서 봄 맛이 중이었다. 어깨를 툭툭 치더니 만 호통을 내린다. 네게 찾아가는 봄을 그렇게 앉아 맞이할테냐고 말이다. 아직 이른 봄일는지 모르지만 기다려 보란다. 네 점에도 노란 봄 꽃이 너도 모르게 필 것이라고 말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만하면 이 도시도 제법 내게 도리를 다 한 것 같았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 양 팔을 벌려 힘껏 안아줬다.

### 3. 12. 금



Geoffrey Johnson. Figures with Palmettos II. 2020. Oil on Panel 36 × 48. artsy.net

그런 날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싸한 날 말이다. 여기에서 그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바로 걱정도 들고 희망도 품는다. 생리적으로 희망은 굉장한 기운인 반면 걱정은 몸이 축난다. 내 몸 축나는 일을 일부러 하는 사람 없지만 희망 품는 일보다 걱정이 요상하게 쉽다. 거대한 도시 검은 한 점으로 자각한 일도 따지고 보면 에너지를 못나게 쓰는 일이다. 한데 너무 현실적이다. 이 실제적인 회색 빛을 거부하고 거대한 도시 한 권을 에머랄드 빛으로 발광한 용기는 감동적이다. 이 용기를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 에머랄드 빛으로 들어온 희망을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



### 3. 13. 토



Geoffrey Johnson, City Buildings Green, oil on wood panel, 2013 via Hubert Gallery

거대한 도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 새 역사를 시작하는 랜드마크, 이 두 서사를 Geoffrey Johnson은 작품 배경으로 삼는다. 하지만 인상만 남길 뿐이다. 이 아래 외로운 사람이 모인다.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사연 많은 이에게 작가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일까. 한데 이 공간은 추상이다. 마음으로만 쓸 수 있는 곳이다. 익명성을 보장하기에 공간은 단색이고 실루엣만 있다. 이 감정이 되레 고립감으로 답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빛에 끌려 들어간 무한 공간에서 비망록을 읽으며 위안받고 해방감을 만끽했을 때 터져 나오는 탄성은 스스로를 구원한다. 이 작품이 내게 남긴 이 공간은 엑셀시오르, 높이 더 높이였다.

3. 14. 일



Geoffrey Johnson. Staircase with Red Wal. 16×12.



Geoffrey Johnson. [principlegallery.com](http://principlegallery.com)

거대한 도시 속 낯선 공간에 도착했다. 강렬한 색채에 혼이 빠져나갈 듯 아찔했다. 하지만 곧 평온했다. 내가 제법 이 곳과 어울린다고 여긴 탓이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하나 둘 디딜 때마다 날아오를 듯도 했다. 이 생경한 느낌은 참 오랜만이다. 땅 속으로 파묻힐 것만 같은 날 모두를 순식간에 털어냈다. 거대한 도시 검은 한 점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내 생각도 반성했다. 창가에 선 내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거대한 도시 낱알의 일상을 이 마음으로 사는 일은 삶의 지혜였다. 따뜻한 해를 기다린 보람이다.



### 3. 16. 화



Geoffrey Johnson. 5 Figures in Yellow. 12×16. oil on panel. principlegallery.com

어느 날 Geoffrey Johnson(1965 ~ ,미국) 작품이 내게 왔다. 첫 작품부터 강렬했다. 내가 검은 한 점으로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생경했다. 무엇이 내 모습을 이렇게 자각하게 했는지가 궁금했고, Geoffrey 작품 면면에 빠져 들었다.

첫 번째 발견은 거대한 도시였다. 하지만 작가는 도시 인상만 남긴다. 그 까닭은 뭘까. 그 답변이 두 번째 발견이다. 술한 평론가가 Geoffrey 작품에서 공간을 중요한 키워드로 꼽는다. 사실과 추상 사이에 존재한다는 이 공간은 차원 이동을 할 때 켜지는 워홀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공간을 발견했을 때 든 생각이다.

공간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마음 온도에 따라 공간 쓰임은 제각각이다. 색채는 내 마음과 솔직한 대화를 이끄는 작가의 배려였다. 속 시원한 적도 있었고, 위로를 받은 적도 나를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도와줬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이다. 쉽사리 떠날 수 없는 거대한 도시와 검은 한 점인 내

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유지하고 발전해야 하는지, 영혼을 깨우고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 결과는 계획이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말이다. 새로운 그것을 찾았으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순간 시작입니다 라는 Geoffrey Johnson 조언을 따를 차례다.

### 3. 17. 수



Geoffrey Johnson. Alvin's House – Red, 38×38, oil on board. [principlegallery.com](http://principle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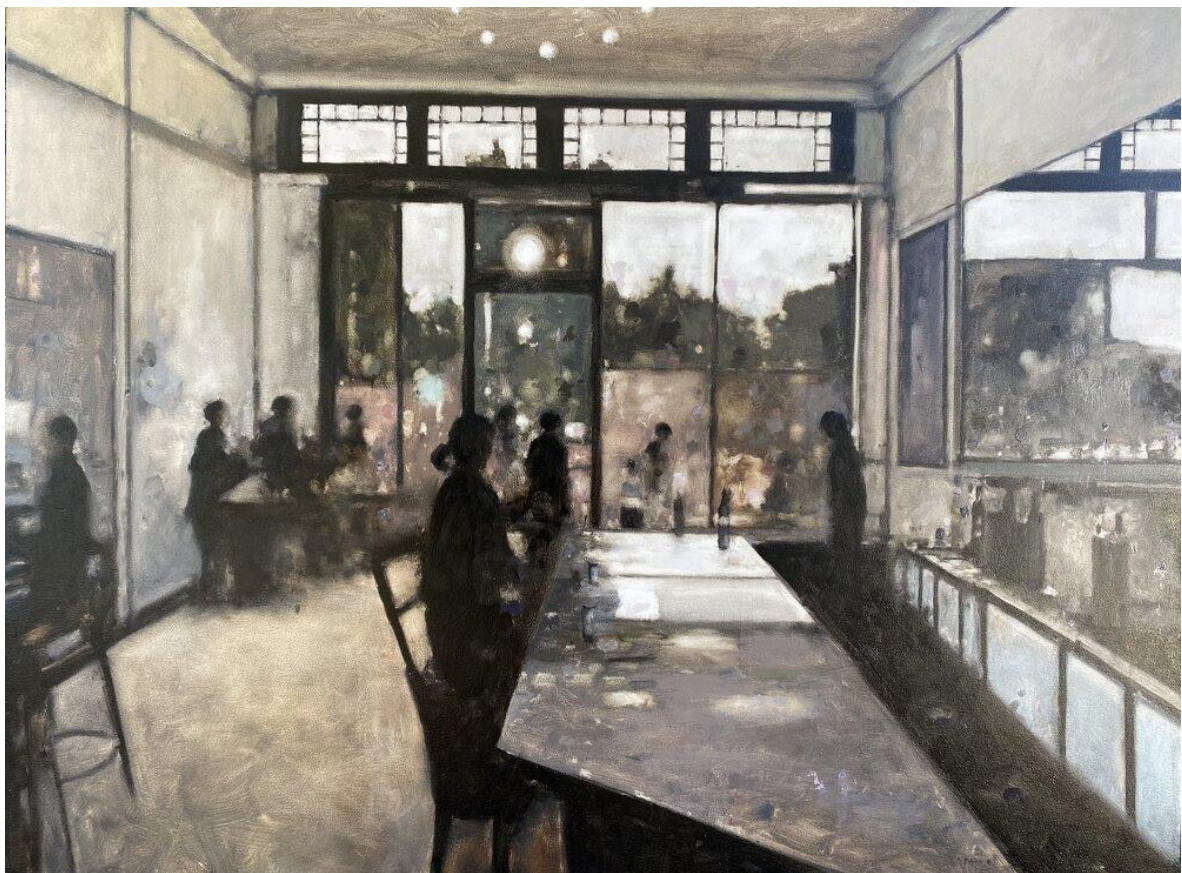


새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데 좀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 살짝 당황하고 있다. 콘셉트 설정과 시나리오까지는 스무스했다. 곧바로 완성할 기대감에 부풀어도 있었다. 딱히 곤궁 할 까닭이 없는 데 심란하다. 환기를 할 겸 창문을 열고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앨빈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한데 이전 작품과 다른 점을 느꼈다.

검은 한 점이 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이다. 되레 저 소파에 엉덩이를 깊숙이 들이밀고 앉으면 강렬한 레드가 내 심란함을 털어줄 것 같았다. 게다가 앞으로 쓰러질 듯한 책장 기세를 소파가 중심점 잡아주는 이 안락함은 또 뭘까.

여튼간에 배경으로 삼는 거대한 도시 인상만 남기는 작가 방식과는 다른 이 작품 앨빈의 집은 작가 역시 새로운 시작이 나처럼 정체감이 들었을 때 감정을 역설한 표현 아닌가 싶었다. 이래 쓰니 묘하게 위안이 된다.

### 3. 18. 목



Geoffrey Johnson. Tasting Room I, 2020. artsy.net

이 밤 시간 무엇이 없을까라는 생각 끝이 곤궁하다. 뒤척이다 문 밖을 서성이다 잠자리를 파고 들 찰나 Geoffrey Johnson도 이런 밤이 있을 텐데, 작가는 무엇을 했을까.

여러 작품을 훑어보았다. 딱딱지 않다. 작가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도시 곳곳을 쏘다녔는데도 사로잡는 인상 하나 없는 그런 날, 지금 나처럼 말이다. 허탕 치는 날도 있겠지 이런 일도 있겠지라며 허기 달랠 겸 자리 잡고 앉은 곳에서 작가는 사근사근 아기 숨 쉬는 거대한 도시 속내를 보고 만다.

모든 것을 삼킬 듯 질주하던 거대함도 속마음은 사실 지치고 외로웠던 게로구나. 그 사정을 이제야 알아차린 무심함이 야속한 지 어둠을 핑계 삼아 돌아 누운 등짝에는 사나운 발자국으로 군데군데 멍 투성이다. 원망만 늘어놓은 내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미안한 내 심장 소리 들었는지 그제야 잠이 든다.

### 3. 18. 목



Geoffrey Johnson. Appian Way I. 11×14. oil on board. [principlegallery.com](http://principlegallery.com)



창문을 열었다. 잠 자리 털어내는 데 이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창 밖 소리 여럿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그중 으뜸은 목련 꽃이 겨울잠을 걷어내는 하얀 소리다. 이것저것 망설임 많은 내 앞에서 보란 듯이 꽃봉오리를 박찬다. 이 기운 아름답다.

내 몸짓이 달라지고 있다. 말하기 힘든 내 상처가 있었던 것일까. 실 새 없는 환호성에 용기를 낸다. 목련 꽃나무가 지척에 있는 일을 내 자랑거리로 삼을 줄이야. 봄을 기다렸던 까닭을 거대한 도시를 떠나지 못한 사연이 이렇게 납득이 될 줄 몰랐다.

Appian Way에서 Geoffrey Johnson 봄도 이처럼 들었을 것이다.

### 3. 19. 금



Geoffrey Johnson. Station Interior. [principlearttalk.com](http://principlearttalk.com)

제법 끌리는 작품이 있다. 색채 조화가 아름답고 내밀한 감정선을 끄집어내 새로운 관계를 맺게하는 작품, 또는 신묘한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작품을 말한다.

인상주의, 사실주의, 표현주의 등등 숱한 미술 운동 사조를 알고 귀동냥 한 작가 삶을 알고 그러면 미술은 혼자 수다 떨기 참 좋은 대상이고, 글감이 묘연할 때 빌려 쓰기도 좋다. 이런 날 그런 날을 쌓고 있었다. 어느 날 사실감이 뛰어난 작품을 만난다. 인물 실사와는 궤가 다른 실제감을 느끼는 경우이다.

Geoffrey Johnson 작품 cityscape 시리즈는 이런 면이 유난하다. 그 까닭은 뭘까.

원근법에 있었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깊이를 조작하는 기법으로 먼 거리와 광대한 공간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안겨준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Filippo Brunelleschi) 거울 초점 실험 이후 미술 사조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이른바 '시각적 효과'이다.

소실점이라고도 부르는 이 원근법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동 양을 좌지우지하고 미술 천재성을 가늠하는 테크닉이라고도 한다.

이 StationInterior 는 제프리 존슨 소실점을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여기에 작가 특유의 세피아 톤은 떠나는 이와 남는 이 사이 어디쯤에서 망설이는 한 사람을 포착한다. 기차 역 서사를 한껏 치켜 올린다.

### 3. 20. 토



Geoffrey Johnson. Old City, Evening I. 2020. Oil on Panel 36 x 36 in. artsy.net

소실점이 깊을수록 시각적 효과는 속 마음을 꼭 집어낸다. 이런 밤 길은 오래된 것일수록 안심이 든다. 밤 새도록 걷다 서다 서성이다 돌아서다를 반복해도 바람 처럼 내가 가볍다. 내 마음 푸르고 싱싱하다. 별을 쏘아 올린다.

### 3. 20. 토



Geoffrey Johnson. RAIN. [tuttartpitturasculturapoesiamusica.com](http://tuttartpitturasculturapoesiamusica.com)

비 온다. 오후 일정을 취소했고, 점심은 꽤 먼 곳으로 가 먹으려고 채비 중이다. 비 오는 날은 내 마음을 비에 맡기고 빗물 따라 나도 그 물길에 오르면 훌가분하다. 비 오는 길 위에 그들처럼 나도 서 있다. 비 오는 날, 세피아 톤 제법 좋다.



## BRIAN ALFRED (1974 ~ , 미국)

### 3. 23. 화



BRIAN ALFRED. Bookshelves. 2003. mahokubota.com

컨템포러리 아트 Contemporary Art, 그림을 볼 때 간간이 등장하는 이 말 뜻을 사실 정확히 모른다. 애써 그 뜻을 알고자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데 궁금했다. IESA EDU라는 사이트를 찾았고 구구절절 설명한 글을 읽었지만 '그래서 한 마디로 뭔데!'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사라졌다.

맹한 울림을 잠시 겪은 후 내 질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뻘뻘 입 소리를 숨 가쁘게 내는 몇 개 문장이 팔딱이고 있었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다면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 '공통 주제는 정체성, 신체, 기술, 세계화, 이주, 사회, 문화, 기억, 시간 흐름, 비평을 포함한다' '1910년 Roger Fry, Contemporary Art Society를 창립' 등등이다.

이 문장들만으로는 컨템포러리 아트를 내 이해 수준에 안착할 수 없었다. 한데 세 번째 읽는 도중 '과거 미술이 종교, 신화, 후원자 영향을 받은 점이 있다면, 현대 미술은 작가 관심사 또는 자기표현에서 비롯한다'는 글이 눈에 들어왔고, 예술이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태초적 개념을 엮으니 이 컨템포러리 아트에 대한 내 관점을 찾은 듯했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대화'였다.

작가는 자기 관심사를 피사체 삼아 그림이라는 매체로 내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대화 주제는 작품 그 자체이다. 요컨대 BRIAN ALFRED는 Bookshelf 작품으로 내게 말을 건 것이다. 이에 응대하는 단순한 내 감상을 시작으로 비평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즐길 수 있는 대화일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제법 즐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두고 작가와 내가 꽤 공감한 지점은 '소장해 둘 만한 지식의 빈곤'였다.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컨템포러리 아트는 본래 그런 것이라는 것이 내 이해 수준 답변이다.

### 3. 23. 화



BRIAN ALFRED. SPRAY. brianalfred.net

알프레드 작품은 종종 사회 비판적이고 현시대 거울로 삼는다고도 한다. 컨템포러리 아트에 속하는 작가는 그림을 매개체로 어떤 메시지를 갤러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이 메시지는 작가와 대화의 물꼬가 된다는 내 이해 수준에서 이 작품은 두 가지가 난해했다.

하나는 작품 저장 파일 명이 'SPRAY'인 점 다른 하나는 작품 속 모든 피사체는 잘려 있다는 점이였다. 알프레드 메시지는 무엇일까. 곰곰이 들여다보고 비행기 엔진이 뿜는 연기를 보고 'SPRAY'라는 파일명을 쓴 것 같았다. 다른 하나는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도 컨템포러리 아트 한 특징인가도 싶었다.

designcollector.net에 실린 알프레드 작품에 대한 평에서 실마리를 얻었고, 단절이라는 말이 떠 올랐다. 요컨대 비판적 시각에서 알프레드가 느끼는 현시대는 전체 이미지

는 있지만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은 잘린 일부분만 보고 느낀다는 것이다. 마치 그 일부분으로 전체를 봤다고 얘기하는 일이 수두룩해 단절이 새로운 단절을 낳는 시대라는 점은 경계해야 함을 일러주는 듯싶었다. 컨템포러리 아트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다.

### 3. 24. 수



BRIAN ALFRED. Along the Banks rivers. designcollector.net

선과 면이 안겨주는 합리성 허나 자연은 모두 곡선이였다. 굽은 길은 직선으로 만들었다. 바람이 흩을 쌓아 이룬 변주의 땅은 면과 면으로 구분했다. 이 경계가 분명하면 할수록 마음은 각이 졌고, 각진 곳을 눈 여겨 살피지 않으면 아팠다. 아픈 까닭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 느즈막에서야 깨달았다. 하늘에서 내려 다 보고서



야 농친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선이 굵었을 때 휘어졌을 망정 끊어지지 않았고 행복했다는 점을 말이다.

### 3. 25. 목



BRIAN ALFRED. Aside the Mountaintops



BRIAN ALFRED. Endless city. Maharam

짓궂다. 작가는 풍경조차 가만 두지 않는다. 사진기를 든 나라면 배경 담을 자리 찾아 분주했을 것이고, 포스팅을 했을 것이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좋아요를 기대하며 흡족해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다. 풍경은 전경과 배경이 어우러진 큰 자연이고 그 자연을 온전히 대할 때 비로소 순수 이성을 발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싶다. 이번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3. 26. 금



BRIAN ALFRED. sunnyside.2019. widewalls.ch





BRIAN ALFRED. Korea soho. 2019. arts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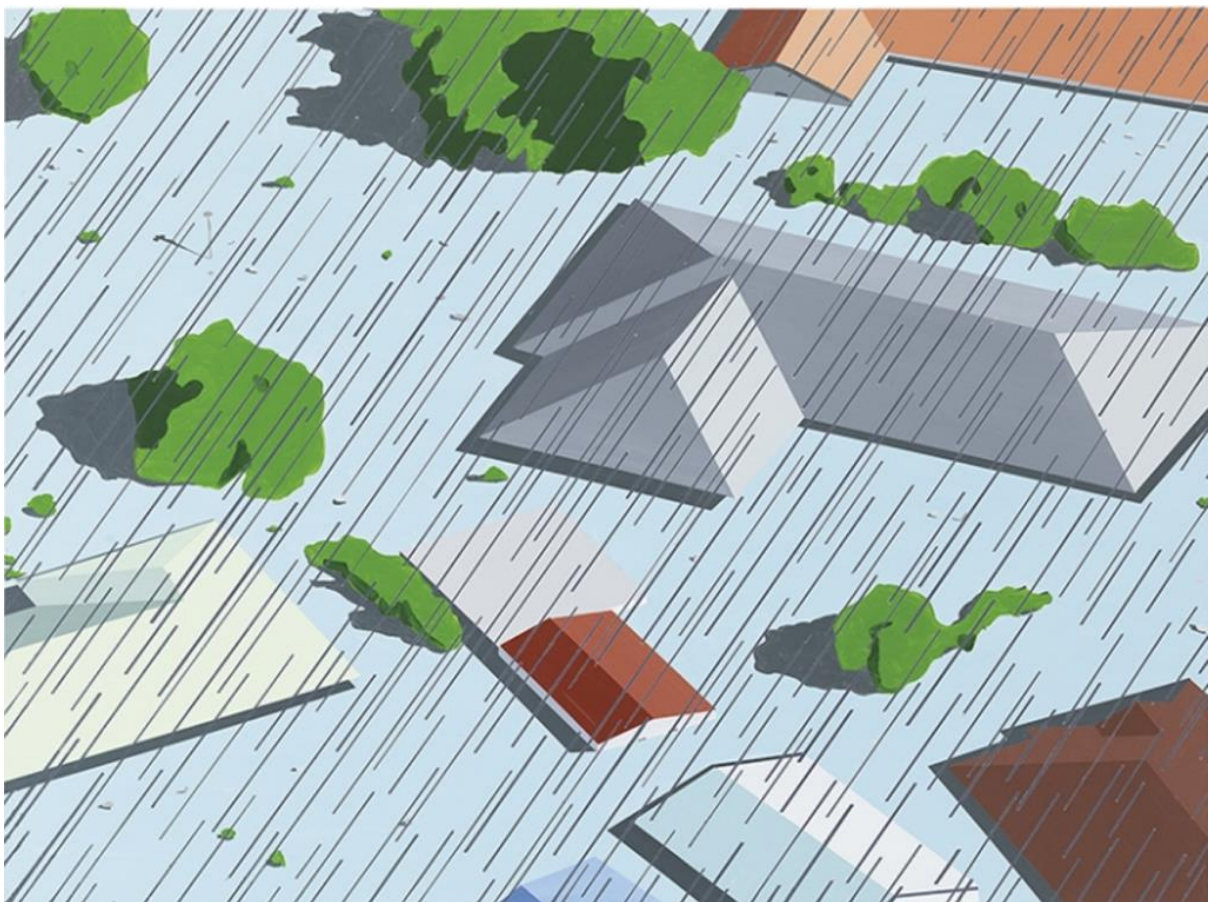
BRIAN ALFRED 몇몇 작품 소재에는 국기가 있고, 언어가 있다. 한글과 태극기 소재 작품은 각 한 점 씩 찾았다. 이는 뉴욕 어느 거리에 있는 내 나라를 목격한 것 같



다. 한데 일본을 대하는 작가 태도는 달라 보였다. 직접 방문한 듯싶었고, 그 감상을 여러 작품으로 남겼다. 눈에 띈 작품 속 일장기(日章旗, 日の丸: 히노마루)와 일본어는 작가 고유 소재 같았다. 일본 고유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 노력도 역력했다. 작품 개수도 많았다. 묘한 서운함이 서렸고, 내 나라는 치열한 느낌이었다. 성 낼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어수선했다.

작가 의도를 망치고자 하는 바 아니지만 반론으로 맞서고 싶었다. 하면서도 현재 내 모습이 이 두 작품 중심 소재였다면 작가는 내게 이 점을 계속 물었을 것이다. 한글에 담은 영(靈)이 작가인 내 혼(魂) 어느 부분을 감전시킬 수 있는지를 말이다. 사실 이 점은 최근 나도 화두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K-Language 세계관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다.

### 3. 27. 토



BRIAN ALFRED. Time and Change. 2017. news.artnet.com. morganoestereich.com

비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다. 창 밖 흰 목련 꽃을 걱정했다. 필 꽃봉오리가 주렁주렁한데 비 맞고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다. 다행이었다. 이간 시련에 낙화할 내가 아니라는 듯 곳곳하다.

눈을 돌려 BRIAN ALFRED를 본다. 여느 작가 대부분은 'RAIN' 또는 비로 인한 감상을 작품으로 남겼을 텐데, 알프레드는 'Time and Change'이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일 테고 상징도 있고,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Future Shock' 타이틀로 개인전이 있었는데 보다. 당시 이 전시회를 취재한 Brain Boucher는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보여준다'라는 말로 이 개인전은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를 몰랐다.

Morgan Oestereich는 자신의 미술 프로젝트에 깊은 영감을 준 작품이라며 알프레드 이 작품을 한껏 치켜세웠다. '건축된 세계와 자연 세계 간 직접적인 관계를 즉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쓰나미를 당한 일본 한 마을 모습이 떠 오르는 이 작품을 두고 두 전문가 평가 해석은 복잡했다. 비 오는 날 오후 풍경을 그림으로 기억하고 싶었을 뿐인데, 컨템포러리 아트는 '인류' '통제' '자연' '관계' 이 네 화두를 내게 안긴다. 그건 그렇고 이 작품 속 똥똥 떠 있는 저 집 가족 모두는 무사했겠지!!!

### 3. 28. 일



BRIAN ALFRED. W. 4th St., 2018-19. seditionart.com

처음 이 작품을 봤을 때 감흥은 없었다. 방금 내가 빠져나온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내일 또 그림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궁금함이 BRIAN ALFRED 작품 입문 시작이었고, 컨템포러리 아트를 탐색한 계기였다.

그 후 매일 알프레드 작품을 감상했다. 인상주의 표현주의 사실주의 등 여러 미술 사조와는 다른 점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 방법으로 내가 택한 것은 대화였다. 요컨대 알프레드는 자기 방식으로 화두를 던진다. 그림으로 또는 제목으

로 말이다. 그럼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내 의견을 글로 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이런 내 방식이 통했다고 여겼다. 한데 이 작품 W. 4th. 는 모호했다. 이 역시 컨템포러리 아트 특별한 특징일까 싶었다.

2019년 seditionart에서 알프레드 개인 전시회를 소개하는 글이 인상적이었다.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 일상'이라는 은유 이 한 문장이 W. 4th. 작품 의도를 파악하게끔 했다. 도시 한 구조물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침식하는 과정이 상징하는 힘이 BRIAN ALFRED 작품 매력이라고도 평했다. 게다가 내 미래가 여기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순간 내 눈빛이 늘 반사되어 온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마음이 까닭 없이 아픈 이유도 알 듯싶었다.

도시와 나는 늘 반복하는 일을 주고받는다. 이 교류가 곧 내 삶이라고 여기면 나는 거대한 이 도시에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얻지 못한 채 사멸하는 수순으로 접어든다. 하지만 내가 있는 이 도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상징을 스스로 찾고자 할 때 지하철 역은 항상 새 이정표가 된다.

## Epilog

그림 보는 일이 어느 덧 취미로 발전했다. 우연한 기회에 한 편 그림을 보고 응어리가 녹아 내린 경험을 가진 날부터였다. 벌써 5년이 지났다. 미술 역사와 사조 여기에 따라붙는 페인팅 기법과 재료 · 소재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 감상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그저 보는 것에 탐닉했다. 때로는 감정이입으로 속앓이를 풀었고, 그리움을 녹이기도 했다. 외로움을 즐기는 방편으로도 삼았다. 자연스레 글이 따라 나섰다. 글 자국이 생길 때 마다 마음이 평온했다.

이렇게 한 편으로 묶는 일 시작은 지난 해 11월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간 어리숙한 내 글을 애정으로 읽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 시작했다. 이번 두 번째 묶음도 이 뜻과 다르지 않다. 한 편 글을 브런치에 올릴 때는 대수롭지 않았는데 한 권으로 묶어내니 부끄럽다. 부디 이 마음 살피 주시면서 꽃놀이 즐기시 듯 봐 주셨으면 싶다.